

## 2010.10.04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곡물메이저 루이 드레퓌스사와 Olam사 합병 추진

## &lt;Financial Times (2010.09.24) 주요 내용&gt;

- 세계 159년 역사의 곡물메이저 회사인 루이 드레퓌스사가 최근 식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**싱가폴 기반의 농산물 무역회사인 Olam사와의 합병을 검토**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 - Olam사는 두 회사가 합병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.
    - Olam사의 주요 취급 품목: 세계 최대 캐슈넛 및 참깨 수출, 땅콩, 쌀, 코코아, 로부스터 커피, 목화 등
- 2007-08년의 식량위기 이후 가격 폭등 및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, 농업 및 식품 교역이 주목받기 시작함.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가 G8 정상회의에서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 등 농식품산업의 위상이 크게 제고됨.
- 한편, 지역적으로는 중동 및 아시아 시장이 새로운 신흥시장(Emerging market)으로 세계 식품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음.
  - 중국·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산층 소득이 개선되면서 전체 식품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 뿐만 아니라 쌀·채소 위주의 식량 소비 패턴에서 탈피하여 육류·유제품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.
- 이와 같이 식품산업의 전세계적 위상 제고 및 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, 곡물메이저 기업들은 농부들과 판매자들을 연결해주는 기존의 가교 역할에서 사업모델을 보다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  - 마진이 적은 가교 역할 대신, 최근 식량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크게

개선되고 있는 **농작물 경작사업에 직접 참여**하는 등 장기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.

- 유럽과 남미에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루이 드레퓌스와 아시아·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Olam사가 합병하게 되면, 카길과 ADM에 이어 세계 3위의 곡물메이저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.
  - 품목별로는 면화·쌀·커피가 세계 1위, 코코아·밀·옥수수·식물성 식용유 등에서도 세계 5위 수준의 규모를 확보할 것으로 보임.

## &lt;시사점&gt;

-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수입량의 60% 이상을 곡물메이저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만큼, 이번 드레퓌스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합병의 파급효과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## □ EU, Dalli안에 주요 외원국 반대 의사 표명

## &lt;Agri-net (2010.09.27) 주요 내용&gt;

- 지난 7월 EU 위원회는 **GMO 경작 허용 및 금지권을 회원국에 전면 이양하는 Dalli안**을 확정된 바 있음.
- 그러나 이에 대해 EU 주요 회원국의 농업장관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, EU의 계획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임.
  - 독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, 프랑스·스페인·이탈리아·폴란드도 완전히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.
- 현재 논쟁의 핵심은 지난 7월 공표된 Dalli안이 WTO에 위배되지 않고 EU의 단일시장 개념과 양립 가능한가에 맞추어져 있음.
  - 러시아는 두 입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, **스페인과 이탈리아는 Dalli안이 'CAP의 붕괴'라고 경고**함.
- EU 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업장관들이 입장을 숨기고 있으나,

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함.

-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불가리아, 오스트리아, 헝가리, 그리스, 발틱 연안국, 네덜란드 등 Dalli안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표하는 국가의 수는 많으나, 투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(Voting power)이 적은 국가가 대부분임.
- 영국, 아일랜드, 포르투갈 등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, 다른 회원국들의 반응이나 보조금 정책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임.
- EU 보건/소비자 집행위원 John Dalli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현재의 제안서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힘.
- 또한 Dalli안은 과학적 평가에 기초한 기존의 EU 규제 시스템은 유지하되, 각 회원국이 특정 GMO의 경작을 허용 또는 금지하더라도 건강/환경과 관련한 EU 가이드라인의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.
- 현재 논쟁은 **10월 14일로 예정된 EU 환경협의회**로 옮겨가고 있는데, Dalli 집행위원은 이 회의에서 Dalli안에 대한 최종의견(Final say)을 발표할 예정임.

#### <시사점>

- EU 지역의 GMO 경작 허용 및 금지는 세계 곡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이므로 향후 추이에 대해 지속적 관심 필요